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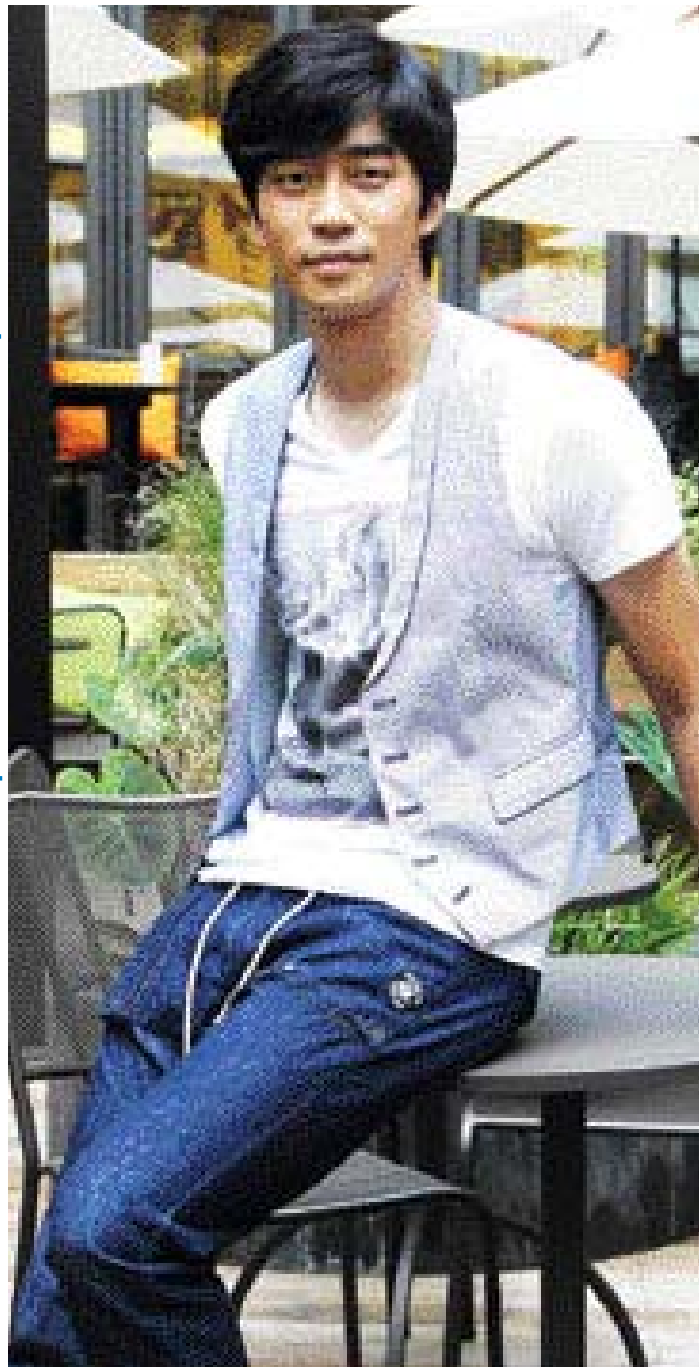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까칠 연하남, 아줌마 사로잡다

“내년 군입대 전까지
많은 작품하고 싶어”

신성록



또다시 '연하남 신드롬'이다. 이번에는 신성록(28)이다. 신성록이 SBS TV 주말극 '이웃집 웬수'에서 이훈녀 지영(유호정 분)을 좋아하는 까칠하면서도 매력적인 연하남 셰프 건희를 맡아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은 제 공연장에 20~30대 여성 관객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 공연에는 그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작 젊은 여성은 제 팬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예전에는 거리를 지나다니면 질 간간이 알아보셨는데 지금은 아줌마들이 백이백 백 알아보고, 그중에는 소녀같이 수줍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세요.(웃음)”

2003년 데뷔 이래 뮤지컬과 드라마, 영화 출연을 병행해온 그는 현재도 '이웃집 웬수'와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에 나란히 출연하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내년에 군대에 가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욕심껏 많은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30대부터는 절대 이렇게 두 작품을 병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는 한 번에 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지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어느 작품 하나 성의없이 하지는 않았지만 20대에는 욕심을 채웠다면 30대에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일하고 싶어요.”

시청률 20%를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웃집 웬수'는 현재 건희와 지영의 러브스토리로 한창 물이 울랐다. 아이가 있는 연상의 이훈녀에게 속절없이 마음이 가는 '훈남' 건희의 모습은 이 드라마의 시청률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다.

“건희가 지영보다 8~9살 어릴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호정이 누나보다 13살 어리고요. 처음에는 건희가 지영을 구박도 많이 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했잖아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욕심이 큰 건희는 지영에게서 자기가 갖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관심을 갖다가 정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없는 인물을 연기했다면 어색했을 텐데 건희의 모습은 상당 부분 제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5살 연상의 누나이기도 했고요. 제가 소심한 A형이지만, B형 기질도 있어 때로는 건희처럼 고약하게 성질을 부리기도 합니다.(웃음)”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기자를 꿈꿨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감독님들이 187cm의 꺾다리 신체를 조연이나 단역으로 캐스팅하는 데 부담을 느껴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연이 주어지나오. 연기를 하고 싶는데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연기력을 쌓으면 기회가 올 것 같아 연극 무대로 갔습니다. 극단 학원에서 연기를 시작했고 세 번째 작품인 '드라클라'를 할 때 케이 블 드라마 '하이엔나'에 발탁되

면서 TV 쪽으로도 진출했죠.”

그는 이후 드라마 '고맙습니다'와 '내 인생의 황금기', 영화 '6년째 열애중'과 '순수의 시대'에 출연했지만 '기회'는 잡지 못했다. 도중에 MBC TV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개그우먼 김신영과 출연하기도 했지만 둘의 화학작용은 미미했다.

반응은 뮤지컬에서 먼저 왔다. '로미오와 줄리엣' '김종욱 찾기' '몬테크리스토' '마이 스케어리 걸' 등을 거치며 그는 무대 위 스타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웃집 웬수'를 만났다.

“데뷔 후 쉬지 않고 꾸준히 활동한 것 같아요. 너무 뛰지도 않고 그렇다고 조용하지만은 않게 잘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배우로서의 욕심에서는 더 잘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귀엽게 하네' 하는 호감 정도를 얻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호감을 신뢰로 키워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연합뉴스

배두나



나이트클럽 여가수로 변신

“노래요? 솔직히 잘 못해요”

“노래요? 솔직히 잘 못해요.” 배두나가 31일 첫 방송되는 MBC 주말드라마 '글로리아'(극본 정지우, 연출 김민식·김경희)에서 나이트클럽 여가수로 변신한다. 주말 오후 7시55분 방송되는 이 드라마는 나이트클럽을 배경으로 처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배두나가 연기하는 여주인공 나진진은 나이 서른에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여성이다. 열혈결에 '대타'로 나이트클럽 무대 위에 오른 것을 계기로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된다.

드라마의 제목 '글로리아'는 나진진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자 가수 데뷔를 위해 갖게 되는 예명이다. 가수로 등장하는 만큼 배두나의 노래 실력은 극의 흐름 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두나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출연 제의가 왔을 때 가장 겁이 난 것은 노래였다”며 “노래를 잘해야 극이 성립하는데 아무리 역할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출연) 욕심을 내면 민폐를 끼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출연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불가능한 일을 노력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배우의 역할이라

고 생각하고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며 “사실 노래를 잘 못하지만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두나가 연습하고 있는 곡은 모두 3곡이다. 도나 서머의 원곡을 변안한 '글로리아'를 비롯해 나이트클럽 가수로 등장하는 나영희와 함께 부르는 듀엣곡, 그리고 양희은이 부른 '세노야다’.

배두나는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연기와 달리 노래는 정말 힘들다. 아무래도 '무대본' 정신을 극속 캐릭터인 나진진에게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나진진에 대해 “삶의 방향도 꿈도 없이 무작정 열심히 하는 아이”라고 설명하며 “실제 나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다지 욕심이 없는 편이지만 나진진은 여척스러우면서도 밝고 낙관적인 성격이다”고 설명했다.

정지우 작가와는 2007년 '완벽한 이웃과 만나는 법'에서 한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배두나는 “이전 드라마 촬영 때 작가님에게 자주 연락해서 캐릭터의 감정 등에 대해서 묻곤 했는데 잘 도와 주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롤리코스터' 공감녀에 치어리더 출신 서효명

치어리더 출신 서효명이 케이블 채널 tvN이 방송하는 '롤리코스터'의 '공감녀'로 발탁됐다고 tvN이 밝혔다.

농구스타 박찬숙의 딸로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퓌! 퓌! 보아하니'를 진행 중인 서효명은 다음달 7일부터 이 프로그램의 인기 코너인 '남녀탐구생활'에 출연한다.

'롤리코스터'는 주제별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코믹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서효명은 최근 하차할 예정인 정가은에 이어 여성 캐릭터인 '공감녀'를 연기한다.

우천해수욕장 피크닉, 온돌

슬로시리 증도

시원미스 애빙은깁 (비선별 문헌번호)

▶장입서물: 15,000원(주회) / 18,000원(주회) / 18,000원(주회)

중도 1일 체험판

시원미스 애빙은깁 (비선별 문헌번호)	15,000원
시원미스 애빙은깁 (비선별 문헌번호)	18,000원
시원미스 애빙은깁 (비선별 문헌번호)	18,000원

문의: 02-227-9940 / 02-227-9970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하루 잘 듣습니다. • 안부입니다. • 가격이 많이 듭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5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11-1
 총장점 (052) 227-9970

손천점 (061) 752-9940
 옥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